

#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및 자녀의 우울

##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Child abuse, and Children's Depression

김 정 란\*  
전남대학교

Kim, Jeong R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s of interparental conflict, child abuse, and children's depressio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include 964 children who live in Gwangju city and Jeonnam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flict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 abuse. Second, conflict characteristics and child abuse significantly influence the appraisals of self-blame and threat. Third, conflict characteristics indirectly affect the children's depression. Child abuse and appraisals of self-blame and threat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children's depression. Lastly, child abuse and appraisals of self-blame and threat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depression.

Key Words :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child abuse, children's depression.

### I. 서론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하나의 가족에 속하게 되며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은 가족관계를 통하여 형성되어지고 발달해 가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대처방식 등은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중 가족 내 부부갈등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차적인 인성을 형성하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서 혼돈을 겪게 되고 심한 정서변화를 느끼게 되어, 부적응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실제 부부갈등은 자녀들의 성별 및 연령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식·오경자,

2000; Buehler & Gerard, 2002; Grych, Seid, & Fincham, 1992). 그리고 부부갈등의 빈도가 많을수록 자녀는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더욱 심하게 겪게 되며(Cummings & Cummings, 1988), 부모가 심하게 싸울수록 자녀는 분노, 슬픔, 걱정,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부부갈등이 자신에 관한 내용일 때 자녀의 부적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향, 1994).

나아가 선행연구들은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형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학대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갑숙(1991)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재엽과 김희수(2001)의 연구에서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의사소통은 모의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모의 스트레스 정도는 다시 자녀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pple(1989)은 결혼만족도가 낮은

---

\* Corresponding author: Kim, Jeong Ran  
Tel: 062)530-1320, Fax: 062)530-1329  
E-mail: kjr@jnu.ac.kr

어머니의 경우 자녀학대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학대 역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일수록 불안, 우울, 공격성 등이 높고, 대인관계가 위축되며, 성격이 파괴적이고 반항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낮고, 과도한 강박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영숙·홍강의, 1986; 이경주·신효식, 1998; 이해련·최보가, 1999; Briere & Runtz, 1988).

나아가 근래에 들어서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부부갈등과 자녀학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지영(1999)과 이경남(2004)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갈등 자체가 아니라, 자녀가 갈등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자녀의 적응과 더욱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Grych & Fincham, 1990, 1993). Grych와 Fincham(1990)은 부부갈등에 대한 인지-맥락 모형(cognitive-contextual framework)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형은 부부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갈등이라는 자극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보다 자녀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인지-맥락 모형을 지지해 주고 있는데, 권영옥과 이정덕(1999)은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전략 등은 자녀의 공격성, 과다행동, 미성숙행동, 불안행동과 위축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민식과 오경자(2000)의 연구에서 부모의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된 부부갈등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Grych 등(1992)은 자신들이 개발한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부부갈등의 인지적 평가영역인 자기비난과 위협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해도 자녀들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부갈등 특성영역은 자기비난과 위협을 통제하면 내재화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갈등에 대한 자녀의 평가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위협이나 자기비난에 대한 평가가 갈등노출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매개해준다면, 부부갈등과 내재화 문제간의 관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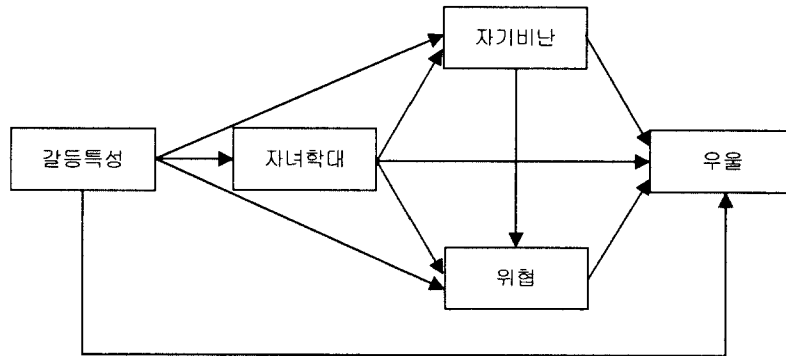
갈등노출 자체보다 부부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이를 어느 정도 위협적으로 느끼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Grych와 Fincham(1993)의 연구에서 자녀들은 부부갈등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더욱 위협적이라고 지각하며, 특히 부부갈등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녀들이 부부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위협적으로 느끼며, 불안이나 우울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위협과 자기비난이 부부갈등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한다는 Grych 등(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부부갈등은 자녀학대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들의 인지적 평가과정이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을 매개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연구들(원지영, 1999; 이경남, 2004)은 부부갈등, 자녀학대, 자녀의 적응 사이의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부부갈등의 경우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특성만을 다루고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평가측면이 배제되어 있어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평가과정이 자녀의 적응과 부부갈등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계규명을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rych 등(1992)이 CPIC에서 제시한 부부갈등의 세 가지 측면을 단일요인이 아닌 각각의 개별요인으로 연속선상에 배치해 두고,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특히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 성차나 연령차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민식·오경자, 2000; Grych 등, 1992)의 결과에 근거해 내재화 문제의 대표적 양상인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여 부부갈등, 자녀학대, 우울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자녀학대, 자녀의 우울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자녀학대나 자녀의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가족복지 실천의 개입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자녀학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 462명과 중학생 502명, 총 9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1) 부부갈등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Grych 등(1992)이 제작한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을 사용하였다. CPIC는 부부갈등에 대한 타협, 강도, 빈도, 고정성, 갈등에 대한 위협지각, 대처, 삼각관계, 자기비난, 갈등내용 등 48문항 9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다시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 진다.

그런데 CPIC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권영옥과 이정덕(1997), Grych 등(1992)의 연구에서 실시된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Grych 등(1992)의 연구에서 첫 번째 집단의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갈등의 빈도, 강도, 타협, 고정성이 한 요인에 부하되며, 내용과 자기비난이 또 다른 요인으로, 위협지각, 대처, 삼각관계가 나머지 요인으로 부하되었다. 두 번째 집단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갈등의 빈도, 강도, 타협이 한 요인, 위협지각과 대처가 한 요인, 자기비난, 삼각관계, 고정성이 마지막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권영옥과 이정덕(1997)은 고정성이 신뢰도가 낮아 이를 제외한 8개의 영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빈도, 강도, 타협이 첫 번째 요인, 내용과 자기비난이 두 번째 요인, 위협지각, 대처, 삼각관계가 세 번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두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CPIC의 구성타당도를 재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표 2>), 그 결과 Grych 등(1992)이 첫 번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인분석과 결과가 일치하였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총 964명)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아	459(47.6)	학년	초등4학년	129(13.4)	
	여아	505(52.4)		초등5학년	167(17.3)	
가정경제 상태인지	하류층	81( 8.4)		초등6학년	166(17.2)	
	중류층	865(89.7)		중등1학년	215(22.3)	
	상류층	18( 1.9)		중등2학년	142(14.7)	
				중등3학년	145(15.0)	
연령 평균(표준편차)		13.36(1.59)				
모연령 평균(표준편차)		40.42(3.47)				
부연령 평균(표준편차)		43.65(3.84)				
					초등학생	462(47.9)
				중학생	502(52.1)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협, 강도, 빈도, 고정성을 갈등특성요인(23문항), 갈등에 대한 위협지각과 대처, 삼각관계를 위협요인(16문항), 갈등에 대한 자기비난과 내용을 자기비난요인(9문항)으로 명명하였다. 갈등특성요인은 갈등빈도, 부부간 적대감과 공격성의 수준, 타협여부, 갈등의 고착화 등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부정적 형태를 나타내며, 위협요인은 부부갈등으로 인해 자녀가 느끼게 되는 위협의 정도와 대처효율성, 부부갈등에서 겪는 삼각관계의 정도를 나타내고, 자기비난은 부부갈등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정도를 나타낸다. 3점 리커트 척도(해당없음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로 세 요인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특성요인의 신뢰도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7$ 이었으며, 위협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3$ , 자기비난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70$ 으로 나타났다.

<표 2> CPIC 요인분석 결과

	요인 I (갈등특성)	요인 II (위협)	요인 III (자기비난)
갈등타협	.86	.00	.00
갈등강도	.77	.37	.00
갈등빈도	.73	.36	.16
갈등고정성	.69	.30	.14
갈등에 대한 위협지각	.21	.85	.14
갈등대처	.24	.79	-.06
갈등으로 인한 삼각관계	.30	.54	.28
갈등에 대한 자기비난	.00	-.03	.88
갈등내용	.20	.25	.79
고유치	2.57	2.07	1.55
분산비율(%)	28.59	22.95	17.22
누적분산비율(%)		51.54	68.76

## 2) 자녀학대

부모로 인한 자녀학대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장화정(1998)이 사용한 척도를 중심으로 신체적 학대 6문항, 정서적 학대 10문항, 방임 10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없었음 0점, 1년에 한두번 1점, 1달에 한두번 2점, 1주에 한두번 3점, 거의 매일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학대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학대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90$ 으로 나타났다.

## 3) 우울

자녀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 List(CBCL)를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표준화시킨 K-CBCL 중 우울을 측정하는 14문항을 사용하였다. 3점 리커트 척도(해당없음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2$ 를 나타내었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주간에 걸쳐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03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초·중등학생 1,25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질문지 중 분석의 정확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한 문항이라도 누락된 질문지는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964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Windows용 SPSS 10.0을 활용하여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기초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자녀학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본 연구모형 내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세 요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r=.24 \sim r=.58$ 로 세 요인간의 상관이 유의하기는 하지만 매우 높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갈등특성, 자기비난, 위협, 자녀학대, 우울 등 모든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발견되었다. 자녀학대의 경우는 갈등특성( $r=.44$ )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은 위협( $r=.51$ )과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갈등특성은 자녀의 우울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는 하지만 자녀학대 및 위협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학대 및 위협 등의 매개변인들을 통해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 변인간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갈등 특성	위협	자기 비난	자녀 학대	우울
갈등 특성	.58***				
위협		.26***			
자기 비난			.31***		
자녀 학대				.31***	
우울					.31***
M(SD)	11.95 (7.06)	10.55 (5.83)	4.63 (2.73)	6.56 (9.52)	8.90 (5.17)

\*\*\* p<.00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간 상관은 r=.58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확대인자(VIF)는 1.00~1.63의 범위로 모두 10이하로 산출되었으며, Durbin Watson 계수(D.W.) 역시 1.87~2.00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다중공선성과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 자료의 회귀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녀학대의 경우 부부갈등의 특성이 부정적일수록 즉, 부부갈등이 자주 발생하며, 부부간에 적대감과 공격성이 높은 수준이고, 타협이 잘 되지 않으며, 갈등이 고착화된 부부일수록 자녀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특성이 자녀학대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19%였다. 비난의 경우 부부갈등 특성이 부정적일수록, 자녀학대가 심할수록 자녀가 부부갈등이 자신의 탓이라고 비난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특성과 자녀학대는 자기비난에 대해 11%의 설명력을 보였다. 위협을 살펴보면 부부갈등 특성이 부정적일수록, 자녀학대가 심할수록, 자기비난의 정도가 심할수록 부부갈등이 위협적

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인의 위협에 대한 설명력은 37%였으며, 위협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인은 부부갈등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자녀학대가 심할수록, 자기비난의 정도가 심할수록, 갈등을 위협적이라고 느낄수록 자녀의 우울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8%였으며, 위협요인이 자녀의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부갈등특성은 자녀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갈등 특성 영역은 자기비난과 위협을 통제할 경우 내재화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 Grych 등(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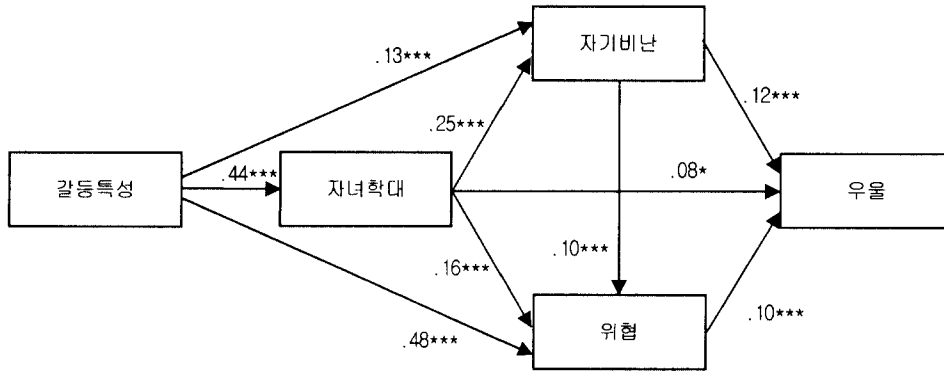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후,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인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그림 2), 각 변인들의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한 β계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학대, 자기비난, 위협이었으며, 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학대, 자기비난이었다.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특성이었다. 모형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부갈등특성은 자녀학대 및 부부갈등에 대한 자기비난과 위협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우울에 대해서는 다른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자녀학대는 부부갈등에 대한 자기비난과 위협, 자녀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부갈등특성이 부부갈등에 대한 자기비난과 위협, 자녀의 우울에 갖는 영향력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부부갈등에 대한

<표 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우울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녀학대		비난		위협		우울	
	B	β	B	β	B	β	B	β	B	β
부부갈등특성	.59	.44***	.04	.13***	.40	.48***	.03	.04		
자녀학대			.07	.25***	.10	.16***	.04	.08*		
비난					.20	.10***	.23	.12***		
위협							.37	.42***		
R <sup>2</sup>	.19		.11		.37		.28			
F-Value	231.26***		57.98***		188.23***		94.41***			
D.W.	1.99		1.93		2.00		1.87			

\* p<.05, \*\*\* p<.001



\*p<.05, \*\*\*p<.001

[그림 2]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우울의 인과모형

자기비난과 위협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부갈등특성과 자녀학대가 우울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모형 내 변인들이 자녀의 우울에 대해 갖는 전체 인과효과를 살펴보면(<표 5>), 자녀의 우울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직접효과  $\beta=.04$ 와 자녀학대, 자기비난, 위협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beta=.42$ 를 합하여 전체효과  $\beta=.46$ 을 나타낸 부부갈등특성이었다. 그리고 위협(직접효과  $\beta=.42$ ), 자녀학대(직접효과  $\beta=.08$ , 간접효과  $\beta=.11$ ), 자기비난(직접효과  $\beta=.12$ , 간접효과  $\beta=.04$ ) 순이었다.

종합해 보면, 가정의 주체인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대나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부부갈등 및 자녀학대는 부모들의 갈등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자기비난을 확산시켜,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대처능력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자녀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갈등특성은 자녀의 우울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자녀학대 및 자녀의 부부갈등에 대한 자기비난과 위협을 통해 미치는 간접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자녀학대, 자기비난 및 위협이 부부갈등특성과 자녀의 우울을 연결해주는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자녀학대, 자녀의 우울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자녀학대나 자녀의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가족복지 실천의 개입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등학생 9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자 한다.

첫째, 부부갈등이 자녀학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부부갈등이 심각한 부부의 자녀들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가족전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제까지 우리는 자녀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자녀사이의 부모-자녀관계에 보다 주목하여 왔다. 물론 부모-자녀관계 개선이 자녀학대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자녀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녀학대의 원인을 가족관계 차원에서 사정하고 가족상담 및 부부상담 등 가족전체에 개입하는 가족복지적 관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학대가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녀학대가 자녀의 정서적인 성장, 발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후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우울은 비행이

<표 5>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우울의 인과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녀학대	부부갈등특성	.13	.13	-
	자기비난	.25	.25	-
자기비난	부부갈등특성	.57	.48	.09
	자녀학대	.19	.16	.03
위협	자기비난	.10	.10	-
	부부갈등특성	.46	.04	.42
우울	자녀학대	.19	.08	.11
	자기비난	.16	.12	.04
	위협	.42	.42	-

나 자살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연구자들(김교현, 2004; Capaldi, 1992)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피해 자녀를 조기 발견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적극 개발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부부갈등이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들 앞에서 부부갈등을 표출할 때는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모들은 부부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이므로 갈등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여 부부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가족복지 실천현장에서는 부부갈등이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숙지하고 가족전체를 고려하여 부부갈등에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긴장과 갈등이 자녀에게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화롭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학습시켜 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자녀의 우울문제를 예방하여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부갈등, 자녀학대, 자녀의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부부갈등 특성은 자녀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자녀학대 및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자기비난과 위협을 통한 간접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인지적 평가과정은 부부갈등 특성이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해 준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부갈등 상황에 대한 자녀의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부모의 갈등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자기비난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부부갈등 지각, 자녀학대, 자녀의 우울.

### 참 고 문 헌

- 곽영숙, 홍강의(1986).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정신건강 연구*, 5, 37-52.
- 권영옥,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권영옥,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박사논문*.
- 김교현(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55-68.
- 김소향(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대 석사논문*.
- 김재엽, 김희수(2001). 부부생활이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5, 101-125.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 K-Child Behavior Checklist: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 원지영(1999).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논문*.
- 이경남(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63-73.
- 이경주, 신호식(1998).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 유형과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8), 39-50.
- 이민식, 오경자(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혜련, 최보가(1999).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 75-85.
- Achenbach, T. M., & Edelbrock, C.(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Briere, J., & Runtz, M.(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and Neglect*, 12, 331-341.
- Buehler, C., & Gerard, J. M.(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78-92.
- Capaldi, D. M.(1992). Co-occurrence of conduct problem and depressive symptom in early adolescence boys, Part II: 2-year follow-up at grade 8. *Development and Psychology*, 4, 125-144.
- Cummings, E. M., & Cummings, J. L.(1988).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al Review*, 8, 296-321.
-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 Fincham, F. D.(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Whipple, E. E.(1989).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University of Washington, PH. D.

(2004. 08. 26 접수; 2004. 10. 06 채택)